구멍은 헤아리지 않고 자루만 끼워 넣는가

아침을 열며

이승현
강진 백운동 원림
동주

요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세간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문제, 경찰국 신설, 이명박 등 국사범 사면, MBC 보도사건, 이태원 참사, 근로 시간 개편, 일본과의 외교 등 국정운영의 3대 축인 정책, 인사, 소통이 대다수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해 연전연패다.

대통령만 너무 애쓴다. 선거 때 은혜 입은 식구조차 내던지고, 가족 연루사건엔 법(法)을 달리하니 이제 뭘 해도 국민들이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됐다. 이것은 정권의 실패, 국민과 나라의 실패로 이어지니 시골구석의 촌부라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책의 설계자는 모든 국민의 희망 설계자인데 자기편 사람들의 혜택만을 설계하는 사람들로 기용한다. 이러한 인사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의 걱정을 넘어 국정 실패의 조짐을 보는 것 같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리는 애완형이거나 사냥형 인사로 채워지고 있는데 마치 '삽이든 도끼든 호미든 용도와 구멍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자루를 억지로 꿰맞추는 꼴'이다.

정치 경험이 없어 국정 장악이 불안하고 수십년 묵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오히려 부정부패를 만들어 내는 인사들이 많다. 이들은 마치 쇠파리처럼 음식의 기미를 쫓고 냄새를 찾아 찾아가지 않은 곳이 없으며 연회와 술상 앞에 진을 치고 떼를 지어 삽시간에 모여들기를 직업처럼 하는 사람들이다 .

진나라 때 이사(李斯)라는 사람은 진시황제가 진나라 사람만을 관리로 쓰고 타국 출신을 쫓아내려 하자 간진왕축객서(諫秦王逐客書)를 지어 반대했다.

"신이 듣기를 다른 나라 인사들을 쫓아낼 것을 의논한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잘못된 일입니다. 진나라 목공은 우나라에서 백리해를, 송나라에서 건숙을 데려와서 천리의 땅을 얻었는데 이들은 모두 진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효공은 위나라 사람인 상앙의 법을 채용해 풍속을 바로 잡아 백성을 잘살게 했고 혜왕은 위나라 사람 장의를 데려와 파촉과 한중의 땅을 합병했으며 소왕은 위나라 사람 범저를 데려와 진나라가 제왕의 대업을 이루게 했습니다. 만약에 앞선 임금들이 다른 나라 인재들을 등용하지 않았다면 진나라가 강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곤산의 옥을 가져오시고, 명월의 구슬로 장식하고, 태아의 칼을 차고, 섬리의 말을 타고 계시는데 이 모두 진나라에서는 하나도 나지 않은 보배들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주는 것들이 모두 진나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을 쓰는 데 찬성과 반대를 묻지 않고,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진나라 출신이 아니면 물리치고 다른 나라 인사면 다 내쫓겠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중히 여기는 것은 여색과 음악과 구슬과 옥 같은 것들이고, 가벼이 여기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셈이 됩니다. 태산은 작은 흙덩이도 사양하지 않기에 그처럼 거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太山不辭土壤), 황하와 바다는 가는 물줄기도 가리지 않기에 물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것(河海不擇細流)입니다. 지금 백성들을 버리고, 다른 나라 인사들을 물리치는 것은 적국의 자산이 되게 하고 적에게 무기를 빌려주는 것이며 도둑에게 양식을 대 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나라가 위태롭지 않기를 바라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였지만 정치적 비판을 막기 위해 학자들의 책을 불 지르고(焚書) 생각이 같지 않은 유생들을 산채로 묻어버리며(坑儒), 아방궁과 불로초를 구하는 폭정으로 결국 반란이 일어나 2대 황제인 아들 대에 멸망했다.

집권한 지 1년, 보수천하를 통일했다는 목사 진시황이 등장하는가 하면 정권이 하는 일을 보면 오늘만 있고 내일이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다른 이들을 걸러내 축객(逐客)을 일삼고 요직은 검객(劍客)들로 병풍을 친다. 송나라 인종때 구양수(歐陽修)는 붕당론(朋黨論)에서 "대체로 군자는 도의가 같아서 붕당을 이루며, 소인은 이익이 같아서 붕당을 결성한다. 그들이 이익이 일치할 땐 잠시 붕당에 끌어들여 벗으로 삼지만 이익을 보면 서로 쟁취하려 다투고 이익이 다하면 오히려 서로 해치려 하니 비록 형제 친척이라도 서로 보호하려 하지 않습니다"고 했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검찰 세력은 소인들의 붕당이 되어가고 기린이나 봉황 같은 인재들을 고삐로 얽어매어 개나 닭으로 만들어버리니 서로 짓는 소리로 요란하다. 푸성귀만 먹어도 노래할 수 있고, 무명옷을 입어도 결백함을 간직한 인재들이 많은데 그들은 윤핵관만 장수로, 나머지 모두는 졸개로 생각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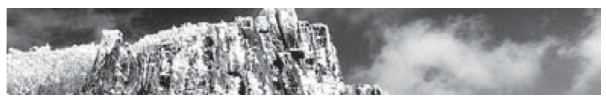
호남에서 생산한 쌀과 채소를 먹고 술과 고기로 잔치하면서도 정신과 사람은 쓸모없다 하니 어쩌다 소인들의 붕당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게 됐는가 한탄한다. 윤핵관 무리는 반대편 사람들을 핍박하고 국민들이 69시간 일하다 '땅 위에 던져져 눈만 껌벅이며 발광하는 물고기'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모양이지만 반대쪽에서는 현 정권이 '그릇이 기울어져 아직 땅 위에 떨어져 깨지지 않았을 뿐'인 것처럼 몹시도 위태롭게 보인다.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일본에 한 것처럼 야당과 대화하고 고물가에, 대출에 고달픈 국민들 보듬는 일에 진력해야 나라가 평안할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천 년 전 사람의 글(古文眞寶後集)을 빌려 교훈으로 새기라고 하자니 안타깝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하는 짓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불가사의하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

서석대

비엔나소시지



지난 2016년 가을 무렵 해외취재 기회가 생겨 오스트리아 비엔나(빈)를 찾은 적이 있다. 당시 모차르트와 하이든, 요한 스트라우스 등을 배출한 클래식 음악 성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큰 행복감에 젖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비엔나커피'와 '비엔나소시지'를 현지에서 맛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었는데, 그때 알게 됐다. 정작 현지인들은 비엔나커피와 비엔나소시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커피 위에 휘핑크림을 얹어 만든 비엔나커피의 진짜 이름은 '아인슈페너'다. 우리가 통상 비엔나커피라고 칭하는 이유는 아인슈페너가 비엔나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란다.

비엔나소시지도 마찬가지다. 국내 한 식품업체의 인기 소시지 제품인 '줄줄이 비엔나'로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현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소시지의 본고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애초 소시지의 원재료는 소고기였는데 여기에 돼지고기를 섞어 처음으로 상품화해 판매한 곳이 비엔나여서 우리에게 비엔나소시지로 알려진 게 통설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광주에서 이 비엔나소시지가 소환돼 화제다. 광주시가 제14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 줄줄이 엮어진 비엔나소시지가 등장해서다. '비엔나', '절대 비엔나', '비엔나(ㄹ)레의 제왕'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이 영상은 영화 '반지원정대'를 패러디해 만든 것으로, 비엔날레와 발음이 비슷한 비엔나를 소재로 활용했다. 또 올해 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잇따라 열리는 것에 착안해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를 소품으로 사용했다. 44초 분량의 티저영상은 29일 현재 조회수가 12만회를 넘어서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영상이 공개된 후 광주비엔날레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건 시선을 끌어모으며 홍보 효과를 거둔 것만은 사실이다. 이제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광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문화행사다. 민선 8기 광주시가 내건 '꿀잼도시'의 시험무대이기도 하다. 모쪼록 홍보영상에 등장한 '줄줄이' 이어진 비엔나소시지처럼 광주비엔날레에 관람객들이 줄을 이어 흥행 대박을 거두고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본다.

최권범 경제부장 겸 뉴스콘텐츠부장

社 說

내달부터 호남·경남 태양광 발전 중단 사태

업계 "정부가 부담 떠넘겨"

정부는 봄철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다음달부터 전남과 경남 지역 태양광 발전을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출력 제어는 전력계통 불안정을 막으려는 조치인 만큼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정부가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1일부터 호남 ·경남지역 지속 운전 성능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비 용량 기준 최대 1.05Gw까지 출력 제어 조치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태양광발전의 보급 확대로 발전량이 급증할 경우 전력 계통에 과부하를 초래해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이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호남·경남지역의 태양광설비 출력 제한에 나선 것은 이 곳에 태양광시설이 집중 보급된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출력 제한 조치의 불가피성을 알렸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보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태양광발전을 중단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이날 정부 설명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발전량 확대를 위해 태양광 출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통연계 유지 기능(LVRT) 기능이 없는 발전소는 출력 정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발전사업자에게 비용 전액을 전가하는 것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지난 21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원전발전비중을 기존 20%대에서 32.4%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력계통을 선제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관련 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출력 제어가 빈번하게 이뤄질 경우 도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증가해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여 정부는 관련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와 함께 송전 선로 건설과 에너지저장장치 보급과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 확충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의 조기 실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따른 가뭄…항구적 대책 마련해야

30㎜ 봄비, 저수율 변동 없어

광주·전남에 가뭄이 이어지고 있지만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에서 제한급수가 초읽기에 들어가고, 영농철을 앞두고 농심이 타 들어 가는 현실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그렇다고 방심해서도 안된다. 최근 2개월간 영산강·섬진강 유역 강수량은 2월 19㎜, 3월 41㎜로 예년에 비해 각각 52%와 69%에 불과하다. 물 절약을 위한 지역민과 산업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2~26일 영산강·섬진강 댐 유역에 30㎜의 비가 내렸지만 주요 댐 저수율 변동은 크지 않은 상태다. 지난 27일 기준 저수율은 주암댐 21%, 수어댐 66.1%, 섬진강댐 19.2%, 평림댐 30.2%, 동복댐 19% 등이다. 앞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계수위인 저수위 도달 시기를 4~5월로 예상했지만 섬진강댐을 제외하고는 올해 말까지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관측이다.

지금 가뭄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강수량 감소가 지속될 경우 댐 저수위 도달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일부 섬에서 제한급수에 들어간 것은 단순한 강수량 하락이 아니고 최근 전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전초단계로 봐야 한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역대 최악의 가뭄도 심각한 위협이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다.

더 큰 문제는 가뭄을 지역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년 더 심각한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재앙적 기후변화 에 맞춰 국가차원의 대응과 장기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댐의 담수 용량을 늘리는 준설도 나서야 한다. 댐이 바닥을 드러낸 지금, 퇴적토만 파내도 담수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섬의 특성을 고려한 지하수 활용과 해수담수화 선박 등 맞춤형 대책도 필요하다. 개개인의 적극적인 물 절약 실천도 당연하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